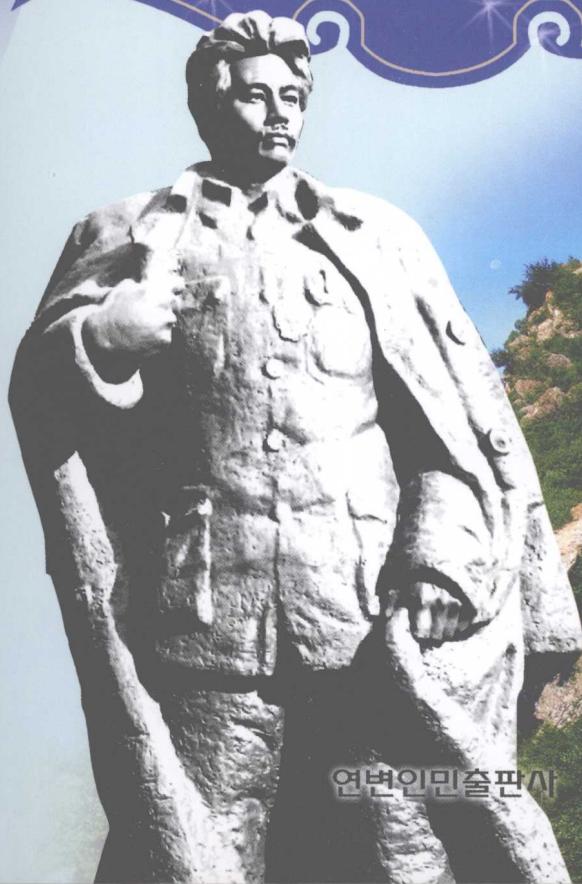




소학생 필독서

사랑스러운 중국

방지민 저



연변인민출판사

소학생필독서

사랑스러운 중국

방지민 저
권상철 김응준 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백동파

책임교정: 윤동혁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可爱的中国: 朝鲜文 / 方志敏著; 权相哲, 金应俊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11

ISBN 978-7-5449-0056-0

I. 可… II. ①方…②权…③金… III. 散文-作品集-
中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69572号

可爱的中国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色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32 印张: 4.5 字数: 110千字

标准书号: ISBN978-7-5449-0056-0(民文)

版次: 2007年11月第1版

2007年11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일러두기

호대봉

아! 나는 비록 실제행동으로 중국을 위해,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할수 없지만 중화민족이 제국주의의 쇠사슬에서 해방될 그 승리의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밤낮없이 맘속으로 기원하고있다! 만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면, 하루라도 살아있는 한 중국을 위해 끝까지 웨칠것이다. 만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피흘린 곳이거나 나의 뼈가 묻힌 곳에 사랑스런 꽃떨기가 필것이니 벚틀이여, 그 꽃송이에 나의 지성이 깃든줄로 알아다오! 만약 그 꽃이 산들바람에 주억주억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은 내가 중화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애국지사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드리는줄로 알아다오! 만약 그 꽃이 살래살래 머리를 저으면 그것은 내가 목청껏 혁명의 노래를 불러 전사들의 전진을 격려하는줄로 알아다오!

그 누가 중화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기를 이처럼 열렬히 기원하였던가? 그 누가 적들의 탄알이 막 내뿜는 총구앞에서도 이처럼 포만된 걱정으로 전투의 갈망을 토로하였던가? 그 누가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얻을수 있는 부귀영화도 떨치고, 사형장으로 압송하기전까지 전투의 관심을 다하지 못한

사업에 돌렸던가?

우리가 읽고있는 이 책의 대부분 문장들은 감방에서 쓰여진 것들로서 당시 저자는 사형을 기다리는 수인의 신세였다. 바로 그이가, 60여년전의 한 공산당원이며 충성스러운 전사이며 위대한 애국자인 방지민렬사이다.

방지민이 생활한 그 시대는 바로 중화민족의 고난이 가장 심중한 시기였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동정부의 배국정책으로 하여 중국인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1900년 강서성 익양현 9구 철공진 호당촌에서 출생하여 1923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전까지 방지민은 줄곧 구국구민의 정확한 길을 모색하였다. 종일 분주히 뛰어다닌데다가 워낙 신체가 허약하다보니 그는 폐병을 얻었고 각혈하였다. 그는 《각혈》이란 시에서 이렇게 썼다.

난 누구 위해 각혈하고?

이 애젊은 나이에도 피를 토해야 하는가?

아! 그렇다!

나는 무산청년!

가정근심도 해야 하고

공부할 근심도 해야 하고

가엾은 무산자형제들 근심도 해야 하거니

오만가지 근심걱정 작은 가슴에 몰렸으니

어찌 붉은 피를 짜지 않겠는가?

소년시기부터 방지민은 동학들과 나라를 구할 길을 의논했고 어떻게 모든 암흑현상을 가셔낼것인가를 연구토론하면서 포만된 열정으로 반제반봉건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친일파들의 배국행동에 전국 각지에서는 한차례 또 한차례의 애국시위가 일어났다. 방지민은 《나 방지민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목숨

을 내걸겠다》는 맹세문을 써서 공개적으로 학교의 게시판에 붙였고 또 청년학생들을 이끌고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고 꺾기모임을 열었으며 표어를 붙이고 일본상품을 배격하면서 당시의 토호렬신들과 견결한 투쟁을 벌렸다. 스무살도 채 되지 않은 방지민은 진작 강렬한 애국열정과 적극적인 투쟁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하였다. 본 책의 첫편 《사랑스러운 중국》에서 당시의 정경을 생동하게 묘사하였고 또한 방지민의 애국주의적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1923년, 방지민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해 당에서는 그를 강서 남창에 보내어 강서당조직을 건립하게 하였고 간부와 적극분자를 양성하게 하였다. 1926년 가을에 이르러서 강서성 동북부의 당조직은 우후죽순처럼 자라났으며 농민운동도 드높이 앙양되었다. 바로 이 기간, 방지민은 의지가 건강하고 지혜가 출중한 혁명가로 발돋움하였다. 당시 국공 량당은 아직 분열되지 않았는데 북벌군의 형세는 아주 낙관적이었다. 방지민은 빈곤한 농민들을 조직하여 각종 형식으로 북벌군을 원조하였는데 북벌군은 신속히 군벌 손전방의 주력을 섬멸하였고 남창과 구강을 점령하였으며 강서의 농민운동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1927년, 장개석은 4.12반혁명정변을 발동하여 수많은 공산당원과 혁명적군중을 대도살하여 도처에 백색공포가 뒤덮였다. 피의 교훈가운데서 방지민은 무장이 혁명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는것을 깨달았다. 이어, 그는 성위령도의 비평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호의 주저도 없이 농민무장을 건립하고 발전시켰다. 1927년 11월, 방지민은 익양, 횡봉, 귀계, 연산, 상요 다섯개 현의 공산당원들이 참가한 편석회의를 소집하고 다섯개 현에서 대폭동을 일으킬것을 결정하였다. 이때의 방지민은 한 혁명활동가로부터 군사가로 전변하였다. 1928년부터 그가 령도하는 농민혁명군은 반동군대와 무장투쟁을 벌렸는데 그는 탁월한

군사지휘능력을 나타내었다. 1930년초에 그의 농민혁명군은 이미 중국공농홍군 강서독립제1환으로 되었으며 싸울수록 융맹하여 강철의 환으로 성장하였다. 6월, 독립환은 강서홍군독립사로 편성되었는데 이 시기 근거지는 이미 백만의 인구에 중환으로 500여리까지 발전하여 복건성 북부 근거지와 하나로 이어졌다. 7월에는 편제를 확대하여 중국홍군제10군으로 되었다. 방지민은 군사혁명위원회의 주석으로서 이 대오를 이끌고 한차례 또 한차례의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본 책에 수록된 《〈강서성 동북부 쑸베트창건사〉선언》에서 이 시기의 혁명투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방지민렬사가 강서성 동북부 쑸베트창건을 위해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수 있으며 한 진정한 공산당원이 어떻게 구국구민의 사업에 충성했는가를 보아낼수 있다.

하지만 상급령도의 착오적인 로선으로 말미암아 방지민은 군사지휘권을 박탈당하였고 홍군10군도 막대한 대가를 치렀으며 1935년 1월 24일에는(어떤 사람은 27일이라고 말함) 국민당군대에 포로되었다.

장기간의 혁명투쟁가운데서 방지민은 진작부터 죽음을 초개 같이 여기었는데 포로된후에도 혁명을 위해 헌신할 결심을 더욱 굳혔다. 반동파들은 선후로 고관후록, 금전미녀로 그를 유혹하였지만 그의 신념을 털끝만치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난 공산당을 굳게 믿는다. 죽어도 비밀을 루설하지 않겠다.》 하는수없이 적들은 그를 수인차에 싣고 남창시내를 돌면서 조리돌림을 하였다. 나무우리의 주위는 서늘이 푸른 칼날들이었는데 방지민은 그속에 곳곳이 서서 수시로 수갑을 찬 두손을 높이 들어 두주먹을 불끈 쥐면서 길 양편의 군중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어 반동파들은 공원에서 《방지민을 생포한것을 경축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한 미국기자는 당시의 정경을 이렇게 적었다.

《죽쇄와 수갑을 차고 철갑차안에 서있는 방지민의 격앙된 태도에 관중들은 그에게 무한한 흥미를 보냈다. 주위에는 경계가 아주 삼엄하였는데 방지민을 보는 관중들은 누구나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켰는데 장개석 참모부의 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관중들은 침묵으로 이 절개가 굳은 수인에게 무한한 존경과 동정을 보내고있었다.》

그후 방지민에 대한 반동파들의 온갖 위협과 그자들에 대한 방지민의 견결한 태도는 《죽음》이란 문장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죽음의 신이 당금 탁처울 정황하에서 방지민은 몸이 허약하고 수시로 각혈하였지만 비범한 의력으로 옥중에서 20여만자의 문장을 써두어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 1935년 8월 6일, 방지민은 국민당반동파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36살이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비판하지 말고 위촉되지 말고 분투하라! 지구적으로 간고하게 분투하라! 사람마다의 지혜와 재능을 민족을 구원하는 사업에 모조리 바치자!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중국을 제국주의놈들의 더러운 손아귀에서 망하게 할수는 없다!

희생되기전 방지민은 웨쳤다. 그의 심중에는 오로지 조국에 대한 열애만이 있었다. 그가 전부의 생명으로 분투한 목표가 무엇인가?

…중국에 꼭 찬란하고 광명한 전도가 있을것이다… 그때가 오면 중국의 면모는 우리 손에 의하여 일신될것이다. 일체 빈궁과 재해, 혼란과 살인,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온역, 미신과 우매 그리고 중화민족을 장기적으로 해치고있는 저 아편과 독약—

이 모든것들은 다 제국주의가 가져다준 저주로운 선물인데 이 역시 제국주의가 쫓겨감에 따라 중국에서 일소될것이다. 벗들이여, 나는 확신한다! 그때가 오면 이르는 곳마다에 생기발랄한 창조가 나타날것이고 이르는 곳마다에 날로 새로와지는 진보가 보일것이며 슬픈 탄식은 환락의 노래로, 우는 얼굴은 웃는 얼굴로, 빈궁은 부유로, 죽음의 비애는 삶의 쾌락으로, 쓸쓸한 황무지는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뀌어질것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 민족은 인류의 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을것이며 우리를 낳아기른 우리의 어머니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계의 여러 어머니들과 평등하게 손잡게 될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문장이 사형을 앞둔 한 공산당원의 손에서 나왔는데 그 누군들 그의 진정한 애국열정에 감동되지 않으랴? 구국구민의 위대한 목표를 세운 그날부터 방지민은 자신의 일체를 간고한 혁명투쟁에 바쳤는데 수시로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자신의 분투목표가 실현되는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전정불이하게 나뉘는 생명을 바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하였다. 《청빈》이란 글은 우리에게 《대관》인 방지민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혁명투쟁에 종사하였는가를 알려주고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혁명선열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절개를 지키는 애국주의 정신과 불요불굴의 정신을 학습하고 계승해야 한다.

영웅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채 하지 못한 사업은 여전히 한세대한세대 중국사람들의 사업이며 그의 정신은 한세대한세대 중국사람들이 분발향상하는 강력한 동력이기도 하다.

본 책에는 방지민렬사의 17편 유작들이 수록되었는데 그중 《울음소리》, 《각혈》 등 8편은 그의 젊었을 때의 작품이고 《사랑스러운 중국》, 《마지막 편지》 등 9편은 모두 그가 옥중에서 완

성한것이다. 그는 옥중에서 20여만자에 달하는 문장을 썼는데 그가 희생된후 전해지는 가운데서 류실되다보니 지금 보고있는 9편만이 남아있다. 일찍 50년대 풍설봉동지는 글을 써서 방지민 열사의 유작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헌납할것을 호소하였고 계속 열사의 다른 유작들을 수집하자고 호소하였지만 오늘까지 새로운 발견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보충할수 없는 결함이다. 오늘 우리는 열사들의 유작을 읽으면서 진정한 공산당원의 고귀한 품격에 무한한 경의를 드리는바이다!

차 례

출판설명	1
일러두기	1
사랑스러운 중국.....	1
죽음!	32
청빈	59
모 부부에게 주는 편지	62
옥중실기	65
《강서성 동북부 쓰베트창건사》서언	89
호해, 루몽협, 사명인 세 동무의 죽음	101
우리들의 유언	105
마지막 편지	109
울음소리	111
각혈	113
피와 살	115
쾌락신	116
나의 심장	118
동정심	119
서당	121
일자리를 구하다.....	125

사랑스러운 중국

여기는 감방이다.

이 감방의 사면 벽은 도벽을 한지 오래 되어 도배지가 누르끼레해지고 몇곳은 비가 새서 검스레한 얼룩점들이 군데군데 박히기는 하였지만 해살이 들이비치거나 촉수 높은 전등불이 비칠 때면 실내는 여전히 눈부시게 산뜻해보인다. 천정에 쌍충유리창이 있어 광선이나 공기는 그닥 나쁜 편이 아니다. 그 유리창 밑 실내의 돌벽옆에는 검은 철을 한 장방형 책상이 놓이고 상우에는 두툼한 책 몇권과 필묵통, 차잔 등이 놓여있다. 책상앞에는 다리를 잘라버려 낮아진 대의자가 놓이고 그 뒤편에 석침대가 놓였다. 침대우에는 회색군용담요가 깔려있고 세겹으로 포갠 무명이불이 정연하게 침대안쪽에 놓여있다. 이 감방안쪽의 구석진 곳에 놓인 철도 하지 않고 덮개도 없는 흰 나무상자안에는 번기가 숨어서 밤낮없이 아구리를 벌리고 실내의 수인이 배설하는 오물을 받아들이고있다. 이 나무상자앞쪽 벽밑에 놓인 남색담통은 마치 번기통과 겨루기라도 하는듯이 밤낮 아구리를 벌리고 실내의 수인이 내뱉는 가래와 내던지는 골뎁질과 수지들을 받아들이고있다. 만약 눈에 거슬리는 이 더러운 나무상자와 책상옆에 축새를 차고 앉아있어 얼핏 봐도 수인임을 알수 있는 이 상송^①이만 눈에 띄우지 않는다면 처음 들어와 본 사람은 누구나다 이 방을 감방이 아니라 서재로 여길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① 상송(祥來): 방지민털사자신을 가리킴.

여기에 갇혀있는 상송본신이 보전대도 이 방은 그가 십년전 성 소재지에서 공부할 때 숙박하던 기숙사보다 나은 셈이니까.

이곳은 간수소 우대실의 한칸이다. 원래 이 간수소는 우대실과 보통실 두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우대실은 정치적지위가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곳이다. 그들도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해 무슨 죄를 범하게 되면 법률상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평시의 생활이나 신체조건으로 보아 보통실과 같은 그런 대우는 견뎌낼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들까지 보통실에 가두었다가 여러날 안되어 앓게 되거나 혹시 앓아죽게나 되면 야단나는것이다. 그리하여 특별히 우대실을 설치하여 그들을 들게 하고있는데 이것은 빨리 회개하도록 하려는 심산에서였다. 그러니 우대실이란 감옥이라 하기보다 외려 휴양소라 일컬음이 더 적절하리라. 휴양소와 다르다면 그저 자유로이 나들지 못하는 그것뿐이다. 우대실은 습하고 더러운 보통실과는 엄청나게 다른 판이다. 보통실에서 고생하다 병에 걸린 수인이 이런 깨끗하고 널찍한 우대실을 갑자기 보게 되면 영낙없이 마음속으로 한쪽은 천당이고 한쪽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리라.

상송은 중요한 정치범이기때문에 관청에서는 그의 원래의 주의신앙을 속히 돌려세워보려고 그를 보통실로부터 우대실로 옮기게 하였던것이다.

보통실에 있을 때 상송은 다른 세 동무와 한감방에 있었기에 말동무가 있어 지루한 시간을 심심찮게 보낼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진종일 홀로 외로이 앉아있자니 적적하기 그지없었다. 담배 피울줄도 술 마실줄도 모르는 그인지라 담배로 심심풀이를 할수도, 술로 근심을 가실수도 없었다. 그는 단 한가지 독서로써만이 다른 모든것을 잊을수가 있었다. 워낙 책읽기를 즐기는 그는 한감방에 있는 수난자들한테서 술한 책을 빌어다 읽었다.

그럴 때면 발에 채워진 열근짜리 족쇄도 그닥 무거운줄 몰랐다. 더우기 지금에 와서 책은 마치 모르핀진통제와 같아 책속의 흥미진진한 대목을 읽어내려갈 때면 그는 정신상의 수심과 육체상의 고통마저 말끔히 잊어버리곤 한다.

결국 정력이란 한도가 있는만큼 런이어 몇시간 책을 보거나 먼 머리가 뜨끔뜨끔 아파난다. 그러면 그는 팔굽을 상에 고이고 두손으로 아파나는 머리를 움켜쥐고 계속 읽어가면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린다.

《기껏 아파나라! 아프다가 뇌일혈에나 걸려 속 시원히 죽어버리게서리!》

그는 극통을 더 참을수 없게 되어서야 책을 놓고 책상앞에서 일어선다. 그는 때로는 쇠침대에 몸을 던져 사지를 쭉 뻗고 눈을 지그시 감은채 머리를 쉬우기도 하고 때로는 실내의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거닐기도 하고 혹은 들창가에 서서 창밖에 내리는 굶은비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가지가 절반 죽어 그닥 무성하지 못한 담장밖의 푸른 나무에 눈길을 주기도 한다. 푸른빛으로 걸어가는 버들잎을 보면서 그는 온 대지의 나무들도 아마 봄날의 훈풍속에 파아란 잎새를 돌치고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다소나마 봄맛을 느끼는상싶었다.

그는 날마다 이처럼 틀에 맞춘 생활을 하였다.

오늘 교대에 나온 간수병이 문을 밀고 들어와 상송(적일교대에서 가장 중요한 수인)이를 바라보니 상송은 책도 보지 않고 거닐지도 않고 책상에 마주앉아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붓을 든 오른손으로 종이에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상송은 오늘따라 느긋바 있어 그걸 적으려 한다. 그럼 그는 무엇을 쓰는것일가? 오! 그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있는것이였다.

친애하는 벗에게:

나는 끝내 붙잡혀 투옥되었다.

내가 체포투옥될 때의 정형을 그대들은 신문지상을 통해 대체로 알고있으리라 믿기에 새삼스레 되풀이하지 않겠다. 나는 체포된 뒤 포승줄에 묶이워 묵중한 족쇄를 차고 술한 사진을 찍히우고 장갑차로 압송되었으며 수차의 군중대회에서 조리를 돌리운 다음에야 이 철창속에 와 갇히었다. 이 모든 일들은 흡사 영화처럼 한장면 한장면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추억은 나에게 수치와 고뇌만 더해줄뿐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려루한 지난일을 더 추억하려 하지 않는다! 옥중에서의 나의 생활도 그대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벗이여, 투옥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과 굴욕을 느끼기 마련인데 나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러니 그대들에게 알릴 무슨 희소한 소식이라곤 없다. 내가 오늘 벗들에게 알리고저 하는것은 다른 한 요긴한 문제,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구해낼 문제이다. 아마 그대들은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으리라 믿는다.

내가 투옥된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 아마도 그들은 동물원에 가서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듯한 호기심을 지니고 나를 구경하였을것이다. 배후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론하는지 나는 알수도 없거니와 또 알 필요조차 없다. 나의 앞에서는 모두들 나를 혁명자라고 승인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마치 로동계급이나 농민계급의 리익만 돌보고 민족의 리익은 홀시하며 중국과 민족은 그다지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벗이여 이것이 그대 옳단 말인가? 로동계급이나 농민계급의 리익이 그대 민족의 리익과 모순된단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로농 두 계급의 해방을 위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사람이다. 나를 중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은 참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 농촌 서당에서 글을 읽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제국주의란 무엇인지 제국주의가 중국을 어떻게 침략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라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도 물론 몰랐다. 그후 고등소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어 뭘 좀 알게 되면서부터 중국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차차 알기 시작하였다. 1918년에 애국운동이 우리 학교에까지 파급되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일떠나 대회를 열었다.

대회장에 모인 우리 몇백명의 소학생들은 분노와 원한을 가득 품고 일본제국주의의 끝없는 침략야욕을 몹시 증오했으며 조, 장① 등 매국적들의 간악한 심보를 한결 더 증오했다. 젊은 교원들은(년로한 교원들은 애국운동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하지 않는듯하였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분격하였다. 개회를 선포하자 한 젊은 교원이 강단에 뛰어올라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멸망시키려고 제출한 21개조의 조문을 한조목씩 읽으며 해석을 가하였다. 그의 음성은 낮은데로부터 점점 높아져 고향 소리로 변하였고 별정계 상기되었던 얼굴은 차차 검푸러갔으며 목에는 바늘같은 피대가 일어섰다. 온 머리가 땀투성이가 된 그는 입에 거품을 튀기며 주먹으로 책상을 쿵쿵 내리쳤다. 비분강개한 그 교원의 강연을 듣고있던 우리들은 누구라없이 입술만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 맑게 반짝이던 어린 눈동자들이 별정계 충혈되어 금시 불꽃을 튀길것만 같았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이때 만약 일본강도거나 조여림, 장중상 같은 매국적이 한놈이라도 우리앞에 서있었다면 우리는 단박에 그 놈을 육장내고말았을것이다. 회의에서는 일본

① 조여림(曹汝霖), 장중상(章宗祥)인데 이자들은 1919년 당시 북경 군벌정부 내에 있던 친일파관료들이다.

제상품을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각자의 신변에 있는 일본제품들을 없애버린 다음 상점에 가서 일본상품들을 검사하는 한편 민중들속에 들어가 강연을 하여 그들의 애국심을 환기시키기로 하였다. 산회한후 각 침실들에서는 모두들 부리나케 일본제품을 뒤져내느라고 서랍 여는 소리와 고리짝 여는 소리들이 요란스레 들렸다.

《이건 일본제다. 내버려라!》

유리병에 담긴 일본제 치분 한병이 횡 날아나오더니 대돌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분홍빛치분가루가 온 트랙에 날리었다.

《이것도 일본제다, 짓밟아버려라!》

한 학생이 일본제품인 세수대야를 땅에다 엎어놓고 쿵쿵 짓밟아서 우그러뜨렸다. 법랑철이 다 떨어진 거먼 대야를 발길로 밟다차니 대야는 마치 원통해도 할수 없다는듯 담밀므로 데굴데굴 굴러갔다.

《애들아 이 돗자리는 일본제가 아니지?》

한 학생이 두손으로 돗자리를 쳐들고 몹시 안타까운듯이 물었다.

모두들 다가가 보니 돗자리끝에 《일본제조》라는 녀자가 찍혀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뒤흔쳤다.

《넌 눈이 멀어 글자가 안보이니? 이까짓 돗자리 한잎이 아까와 망국노가 되고싶나?》

그들은 그 학생에게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그 일본제돗자리를 깔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본래 가난한 학생이어서 시골로부터 도시로 공부하러 올 때 가지고 온 이부자리며 용구들이 모두 시골냄새가 풍기는 것들이었다. 그후 간신히 돈을 얼마간 마련해서 일본제치솔과 금강석치분 그리고 일본제세수대야와 일본제돗자리 한잎을 샀었다. 나는 이런 물건들을 없애버리면 이후에 다시 사기 어렵다는